

대학 이념의 변화와 인문학의 미래

정 희 모*

주제분류 대학 교육, 교양 교육

주요어 대학 이념, 지식 정보화 시대, 글로벌 경쟁 체제, 인문학, 융·복합 학문, 공학 기술, 대학 평가

요약문

이 논문은 지적 정보화 시대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대학의 근본이념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다룬 논문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근대 대학의 이념 체계를 탐구한다. 근대 대학의 이념은 대학의 독립과 자유 교육의 이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대학은 인간 본성이 직접 요구하는 지식, 탐구 자체가 목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훔볼트(Humbolt)는 직업 교육보다 인간 교육, 차별 교육보다 보통 교육, 대학의 독립과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 이념은 20세기 들어 기업과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를 겪게 된다. 대학에서는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대학의 역사와 이념에 대한 고민과 물음이 갑자기 사라졌으며, 대학은 당연히 경쟁과 효율의 실용적인 기관처럼 인식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인문학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논문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논문이 대학의 근본이념을 되돌아보고 인문학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내적 다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의 회복을 외치는 이런 논문들은 실제 큰 효용성을 가지지 못한다. 대학 경영자가 이를 손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인문학의 연구를 진작하여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인문학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융·복합 학문이 등장하여 인문과 자연, 사회 과학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인문학이 추론 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 어

* 연세대학교

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인문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이 제안하는 것은 획일적인 대학 운영과 평가 체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다양한 학과들이 단일한 집합체(유니버시티)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획일화되어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는 융·복합 과목과 같이 다양한 과목이 결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이고 특수적인 과목도 등장한다. 과학기술문명이 확대될수록 종합화도 필요하지만 분권화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평가는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타당한 평가체제로 바뀌어져야 한다.

1. 서론

‘대학이 위기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이 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대학이 위기라는 소리는 벌써 40~50년 전에도 있어 왔다¹⁾.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부쩍 ‘대학이 위기이다’라는 소리가 많아 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짐작하겠지만 이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급격한 ‘세계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의 충격은 이념 대립, 세대 대립, 재정 위기와 같은 지난 시기의 충격보다 폭넓고 다양하며, 지속적이고, 도전적이다.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는 우리의 사고와 삶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와 세계를 경험하도록 강요한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학사 행정과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지식 정보화를 통한 대학 변화가 얼마나 지대한지 여러 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상을 내 놓았다. 잘 알려진 미래 학자 드러커(Drucker)는 1999년에 한 논문에서 2020년이면 현존하는 대학의 80%가 문을 닫게 된다고 예견한 바 있다. 드러커는 미국에서 60여만 명의 교수 중 약 10여만 명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드러커의 이런 예측은 대학의 기능이 정보 통신 기술(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로 상당 부분 대체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왔다. 이와 함께 프랑스 사회학자 리오타르(Lyotard)는 근대 제도인 대학을 이제 ‘사멸해 가는 제도’로 규정했다²⁾. 지식 생산과 지식 축적, 지식 전달

1) 전산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면 ‘대학의 위기’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1967년부터 보인다.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를 찾으면 훨씬 이전부터 이런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이달의 발언: 대학의 위기」, 『사법행정』, 8권 9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67.

2) 공성진, 「지식 기반 사회와 대학 교육의 미래상」, 『대학교육』, 2001년 1·2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쪽.

의 주요 기능들이 대학에서 인터넷과 기타 정보 매체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학은 여전히 세계화와 정보 통신 발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대학은 지식 정보화로 인해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를 선 도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포함한 선진 국가들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대학 정책에 관여하여 대학 경쟁을 유도한다³⁾. 예컨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이런 저런 정책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교육역량강화 사업과 학부 교육 선진화지원 사업을 통해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대학 평가, 학과 평가, 교수 평가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실시하고 있다. 이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의든 타의든 지식 정보화의 글로벌 경쟁 속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 정보화 경쟁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낙오되고 도 태될 수밖에 없는 학문과 학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에 경쟁성이 낮은 학문 이나 학자는 소외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으로 측정할 수 없는 순수 이념이나 가치들도 경쟁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이나 대학 교수의 상당수가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예언은 다른 방향에서 실현 가능하 게 된 것이다.

낙오와 도태 과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하나는 생산성

3) 최정윤 외,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14, 2011, p. i ~ x 참고.

이 낮다고 판단된 학문 영역에 대한 도태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성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육 과정과 교수자에 대한 도태 과정이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경쟁력이나 취업률이 낮다고 판단되는 학과들을 통폐합하는 것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며, 많은 대학들이 교양과목의 개편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이와 같이 경쟁에 따른 도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경쟁의 체제 속에서 대학 이념과 철학, 자유교육의 이상, 이성적 인간의 본질, 순수학문이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문학의 위기’로 지칭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논문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강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이나 정책 수립자들이 인문학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 근원적인 것, 순수한 것,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대안은 없으며 그 결과는 더 나빠지고 있다.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속에서 대학의 근본이념을 지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대안을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지식 정보화와 글로벌화가 상업화, 기업화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학의 근본 이념을 지키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이념들은 문명사회가 왜 대학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대학 이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탐색하고, 그 가운데 인문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2. 대학 이념의 변천과 위기의식의 심화

일반적으로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현신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도 현실로부터 떨어져 오로지 학문 탐구에 집중한다는 뜻과 이어져 있다. 대학 이념⁴⁾을 논할 때 보통 이런 의미에서 자유교육의 이상을 언급한다. 사회와 떨어져 인간 본연의 자유와 인간 이성을 탐색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라고 본 것이다. 중세기부터 대학은 극심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자기 이상을 지키면서,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런 대학의 특성에 기대어 근대 교육학자 뉴먼(Newman)은 대학의 이념을 ‘지성의 도야(육성)’라고 규정하고, 이를 ‘그것 자체가 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초월해 인간 본성이 직접 요구하는 지식, 탐구 자체가 목적인 지식을 대학이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이 교회나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교양 있는 보편적 지식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⁵⁾. 철학자 오르테가(Ortega)도 교양인의 양성을 대학 이념으로 보고, 실용적인 지식을 배척했다. 그는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헤쳐 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을 ‘교양’으로 보았고, 대학은 전문지식보다 교양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스퍼스(Jaspers) 역시 대학의 이념을 ‘진리 탐구’로 보고 있다. 그는 진리 탐구를 위해 대학은 교회나 국가, 재정기관, 법률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된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대학 이념은 독립된 지위 속에서 자유교육과 인문교육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4) 여기서 대학 이념은 다른 연구자들의 논의를 받아들여 “대학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본 철학”으로 규정한다. 대학 이념은 대학의 존재 이유와 존립 양식을 규정하는 근본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김철, 대학의 이념과 21세기의 대학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권 1호, 한국교육학회, 2006, 23쪽 참고.

5) 헨리 뉴먼, 지방훈 역, 『대학이란 무엇인가』 김문당 출판사, 1985, 26~27쪽, 52~53쪽.

6) 야스퍼스, 민준기 역, 『대학의 이념』, 서문당, 1973, 11~15쪽.

있다⁷⁾.

근대 대학에서 자유교육의 이상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훔볼트(Humbolt)이다. 그는 프로이센의 대학 개혁을 추구하면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직업교육보다 인간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업 교육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대학은 먼저 인간 교육을 실시한 후 이로부터 생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대학 교육이 직업이나 신분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교육 과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가에 의해 대학 교육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훔볼트가 볼 때 통제된 교육은 참된 진리와 이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는 절대주의 국가 체제에서 대학의 독립과 대학의 자유를 얻고자 노력했다. 넷째, 모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대학이 시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⁸⁾. 훔볼트의 이런 관점을 보면 근대 대학이 자유교육, 보통교육, 인문교육의 이상을 얼마나 열심히 견지하고자 노력했는지 잘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대학 이념을 살펴보면 실용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 삶과 진리에 대한 탐구, 학문 본질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학문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해 대학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대학이 신학자나 법률가를 양성하기도 했지만, 이는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의 독자성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였다. 대학의 독립은 학문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이와 같은 대학 이념이 실용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기술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했고 대학이 이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수사학자인 벌린(J. Berlin)의 논의를 잠깐 살펴보자.

7) 김철, 「대학의 이념과 21세기의 대학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권 1호, 한국교육학회, 2006, 24쪽.

8) 김철, 앞의 논문 28쪽.

벌린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대학 시스템의 변화가 자본주의 성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19세기 대학과 20세기 대학을 구분했다. 19세기의 대학들은 국가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경제계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당시 대학은 자기 충족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를 얻어 신분을 상승하겠다는 기업가적 정신은 대학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다. 학계와 경제계가 분리되어 있던 이런 시스템은 20세기 들어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붕괴된다. 대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생산 과정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 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 20세기 중반 대학이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보다 언어나 수학, 과학과 같은 기초 과목을 강화하게 된 것도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대학이 변화하게 된 것이 자본 계급과의 결탁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⁹⁾.

오늘날 대학 이념은 많은 부분에서 시장 논리와 자본 논리, 경제 논리,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어떤 학자는 대학 이념의 변화가 소수의 학자에게만 치중된 학문 편중 현상,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순수 학문에의 지향 때문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것보다 벌린이 언급한 대로 재정의 문제, 즉 자본의 논리와 대학의 요구가 결탁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19세기의 대학이 훔볼트의 말처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향했지만, 20세기 들어 대학은 자연스럽게 기업 논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독립이나 저항이 상대적으로 자본과의 결합을 쉽게 만들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사실 20세기 초기 대학들이 자본주의의 성격과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시장 권력과 행정 권력에 장악된 한국 대학을 비판하지만¹⁰⁾ 실제 그 기원은 오래된 것이다.

9) James Berlin, *Rhetoric and Ideology in the Writing Class*, *College English* Vol. 50, No.5, 1988, p.480.

이런 역사적 변천과 다르게 전통적인 대학 이념이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인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견해도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학은 실용성과 경제성, 효용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은 대체로 지식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들어 대학 교육의 변화와 당위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의 도래, 인터넷 혁명, 세계 시장의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 교육도 실용적이고 경쟁적이 되어야 하며, 행정 체계는 효율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에 나오는 다양한 보고서¹¹⁾나 대학 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들을 다룬 논문¹²⁾들이 이런 환경 변화의 당위성을 다루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보고서와 논문들이 자유교육이나 보통교육의 이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대학은 기업처럼 부가가치의 생산 주체가 되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기관처럼 여겨진다. 이들의 보고서를 보면 ‘대학을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언급하거나¹³⁾,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또 대학 간 경쟁과 대학 혁신의 조장자가 되어야 할 것¹⁴⁾을 강조한다. 이들의 방법론과 비교 지표는 <투입 - 산출>의 시장 논리에 근거한다¹⁵⁾. 대학에서 다루는 지식은 산업 기술의 지식과 일치하며, 모두 양적 지표로 환산되는 것들이다. 인문 지식이나 예술 지식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서보명은 대학이 기업화되었다는 것을 두

10) 대표적으로 박구용, 「대학의 이념과 교양교육의 미래」, 『범한철학』, 67집, 범한철학회, 2012, 341~342쪽.

11) 이런 논문으로 유현숙 외(2011), 최정운 외(2011), 김정수 외(2010) 등이 있다.

12) 대표적으로 정철민·유재봉(2012)의 논문이 있다.

13) 유현숙 외,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R2011-3-17, 8쪽.

14) 최정운 외,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11-14, ii~iii.

15) 앞의 연구 보고서(최정운 외)에서는 연구 방법의 분석적 틀로 <투입-과정-산출>의 체계 모형을 쓰겠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

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끝없이 생산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 과정을 사기업의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하버드 대학은 끝없이 자산을 추구하여 지금은 미국 2위인 예일대학보다 두 배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교수들은 지식 생산과 교육에 있어 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검증받는다. 평가를 통해 양적, 질적으로 관리하게 된다¹⁶⁾.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보화 시대의 지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대학 이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의 성격과 정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창의성, 융합성, 비정형성, 횡단적인 사고력, 창조적 문제해결력 등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지적 능력으로 흔히 거론된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횡단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창조적 문제 해결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창의성 개념만 하더라도 그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불분명하다. 이들 능력들이 명확하게 무엇으로 지칭된 바는 없지만, 이전의 논리와 대비하여 시장 논리와 자본 논리를 합당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행위나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한다.

버넷은 초복잡성 사회의 특징을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논쟁가능성, 도전가능성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대학 교육과정으로 혁신적인 재구조화 능력, 다양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능력,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비판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⁷⁾. 그런데 이런 사고 능력들이 이전 사회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블룸(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보면 이런 능력들은 이미 교육항목들에 상당수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조정, 탐지, 통합, 구성, 추상화,

16) 서보명,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38~39쪽.

17) 유재봉·정철민, 초복잡성 사회의 대학 이념과 교육과정, 『교육철학연구』 33권 1호, 한국교육철학학회, 128쪽..

일반화, 비판, 창안, 초점화, 자기점검 등등 대부분의 사고 유형들의 기초 항목들은 교육 목표 분류표에 들어 있다¹⁸⁾. 교육학적 원리에서 보면 일반적 사고는 교육 대상과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조작되고 응용되어 고차원적 사고로 기능하게 된다.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강조하는 창조성, 융합성의 개념이 꼭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근대 시기의 학문들도 다양한 분과 학문들을 횡단하는 종합적 사유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종합적 학문인 철학이 위축된 것은 분과 학문을 지향하는 실용적 과학 때문이었다.

근대 시기의 대학들은 대학의 존립과 대학의 발전에 대해 많은 논쟁과 관심을 보여 왔다. 옥스퍼드 운동의 창시자이며 더블린 대학의 총장이기도 했던 뉴먼이 그러했고, 앞서 말한 훔볼트가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칸트도 대학의 독립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칸트는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매우 귀중한 가치로 여겼으며, 철학을 대학의 중심으로 세우고자 베를린 대학의 창시에 큰 역할을 했다¹⁹⁾. 근대 시기에 대학은 많은 지식인들의 이런 노력에 의해 독립과 자율을 지킬 수 있었다.

반면에 20세기 대학은 대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성찰이 있기 전 순식간에 시대의 흐름, 사회의 변화로 의해 자본과의 유착 관계가 결정되어 버렸다²⁰⁾. 대학의 역사와 대학의 이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물음과 고민이 갑자기 사라졌으며, 대학은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의 실용주의적 기관이었던 것처럼 취급되었다.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이 ‘인문학의 위기’와 순수학문의 위축을 비판하지만, 이제 그런 비판조차 상식화되고 자연화된 과정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경쟁의 논리와 효율성의 이념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비판의 주체를 제약하고 비판의 신념들을 제

18) Anderson, L.W.et al, 강현석 외 옮김,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 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아카데미프레스, 2005. 76~77쪽.

19) 서보명,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98~99쪽.

20) 서보명, 앞의 책, 8쪽.

한한다. 상업화에 대한 비판 담론은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히 거기에 존재해야 하는 상식화된 지배적 일상 담론으로 변화했다²¹⁾. 비판 담론 자체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

3. 대학의 미래와 인문학의 역할

1) 대학의 위기와 대응 양상

그 동안 대학의 위기와 인문학의 대응을 논한 여러 논문들이 있었다. 그 중 많은 논문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 초복잡성 사회, 글로벌 경쟁 사회를 분석하고 이 시대의 적합한 교육 방식, 인재상 등을 제시했다. 이런 논문들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인문학의 적응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자기 성찰, 성숙한 인간, 인문학의 중요성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런 논문들은 자본의 논리와 인문학의 논리,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자본의 논리와 인문학의 논리를 쉽게 결합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절충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논문들은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식 정보화 사회와 글로벌 경쟁 체제에 맞춰 대학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경쟁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자본화와 경쟁 논리를 받아들이면 학문의 상업화는 그 다음에 올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보인다. 최근 인문학의 대안으로 문화 콘텐츠, 역사 콘텐츠, 철학 콘텐츠, 한국학의 소재 개발 등이 제시되었지만,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 영역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문학의 현실 적응을 기원하는 논문들은

21)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 Peason Education Limited, 2001, chapter 4 참고.

대체로 학술적인 측면보다 대중화, 상업화, 자본화의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판소리와 같은 전통 자원들은 학술적인 목적보다 문화의 전파와 경제적 부의 창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논문에서는 학술적인 창의성보다 전통 문화의 콘텐츠화, 대중화, 글로벌화와 같은 상업적 성공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둔다²²⁾.

이와 반대로 학문의 상업화를 비판하고 대학의 기업화를 우려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다. 이런 논문들은 대학의 위기가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도입, 자본화와 기업화의 확장, 수월성 교육의 도입에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대학 이념은 전인적인 인간을 교육하는 전통적인 자유교육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용적 교육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있다²³⁾. 문제는 이들 논문에서 보듯 대학의 상업화로부터 벗어날 대안의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논문들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전통적인 대학 이념과 인문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그 방안은 마땅하지가 않다.

많은 논문들이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대학의 근본이념을 되돌아보고 인문학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내적 다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논문에서 보듯 대학에서 상업화, 기업화, 경쟁화가 강화될수록 무엇이 삶의 본질이고,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문학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대학의 자기

22) 박병호, 「문화 콘텐츠 소재로서의 판소리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3호,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09, 52~56쪽.

23) 김철, 「대학이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21세기 대학이념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권 2호, 2006, 39~40쪽,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권 1호, 2009, 16쪽, 안상현, 「인문학적 근본주의의 위기」, 『인문학지』 41호,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10, 2쪽.

24) 이런 입장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철, 「대학이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21세기 대학이념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권 2호, 한독교육학회, 2006,

각성을 강조하고 인문학자의 내적 반성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인문학자가 흔히 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자기 각성과 자기 반성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이 실제 대학 현장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대학 사회에 인문 정신의 복원을 강조하고 자유교양의 이상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이를 받아들일 대학 경영자가 있을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은 실제 비판에 대한 실효성도 없으며, 대안 제시도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런 논문일수록 대학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자본의 힘은 대학 내에 제도적 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행위 양식으로 내면화 되어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양산된다고 해서 비판의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방법은 대학 이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화된 시장주의적 교육 편향에 대항하여 교양인문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나²⁵⁾, 과학 기술과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도래할수록 인간교육, 도덕교육, 창의성교육이 더욱 중시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²⁶⁾과 다양한 학문 분야를 횡단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풀이하는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²⁷⁾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런 주장들은 전문 교육, 직업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는 있으나, 대학 이념의 위기를 벗어날 설득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무엇이 문제이며, 교양 교육이 어떤 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25)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11~12쪽.

26) 송유진,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 『교육철학』 제43집, 한국교육철학회, 2011, 155쪽.

27) 박구용, 「대학의 이념과 교양교육의 미래」, 『범한철학』 제67집, 범한철학회, 2012, 352쪽.

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비판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가 가능한 교양적 지식인이 능력 있는 인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적일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위기의 시대에 인문학적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들처럼 공허하게 들린다. 이미 현실은 보통 교육에서 수월성 교육으로, 교양 교육에서 전문 교육으로 옮겨 왔을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간의 양성보다는 능력 있는 경쟁적 인간을 양성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근대적 교육 이념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교육 이념의 정신과 체계가 지식 정보화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새로운 교육모형에 접목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경쟁의 논리 속에서 대학의 상업화, 자본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 인문학의 회복과 그 방법

현재 대학의 성격을 규정하게 만든 것은 과학 기술 혁명 때문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 초복잡성의 사회를 만든 것은 과학 기술 혁명이며, 대학도 이런 영향의 중심에 들어 있다. 오히려 자의든 타의든 대학은 과학 기술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선도의 위치에 있으며, 변화를 통해 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할 중심적 위치에 있다. 어려운 점은 자본과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 문명을 이끈 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학 기술은 근대 문명을 이끈 핵심적인 기술으로,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구체적, 현실적, 역동적 지식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은 사회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내재적 논리와 발전 법칙을 가지고 있

다는 생각(기술 결정론)에서부터 기술이 인간의 가치관과 사회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논리(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행위자-연결망 이론)로 발전한 것이다. 기술은 공학자, 관료, 기업, 시민 등의 인간적 요소와 자연, 실험, 도구 등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는 연결망을 통해 결정된다²⁸⁾. 기술은 인간의 욕망과 가치, 사고와 무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요소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다시 말해 공학 기술과 인문학의 접목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공학은 단지 과학의 일종이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의 성격 모두를 띤 혼성문화”²⁹⁾라고 규정한다. 융합, 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에는 과학 역시 혼성 문화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많은 학자들은 과학기술 혁명과 함께 미래의 대학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대학의 형태가 창출될 것이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또 학문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학제 간 연구, 융·복합 연구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학문 간의 경계가 필요 없는 새로운 분야, 예컨대 금융공학, 뇌과학, 나노과학, 정보언어학과 같은 학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바이오 디자인 연구소(Biodesign Institute), 예술과 과학의 새로운 학제 대학(New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Arts and Science), 지속 가능 학부(School of Sustainability) 등과 같은 융복합 대학을 만들었다. 바이오 디자인 연구소에는 생물학, 회계학, 공학, 법학, 사회과학을 망라한 100여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³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융·복합 연구와 관련하여 공학뿐만 아니라 인간,

28) 김환석, 「과학과 인문학을 있는 공학교육」, 『공학교육』 17권 2호, 20쪽.

29) 김환석, 위의 글, 21쪽.

30) 오세정, 미래에 우리는 어디에서 공부할 것인가, 김광웅 엮음,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생각의 나무, 2009, 314~315쪽.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문학은 융합, 통합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본성과 사유 능력에 대한 탐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융·복합 연구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인문학의 본래 성격을 잃지 않고, 학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학문사회에 인문학의 존재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히 인문학 고유의 기초 연구는 더 중시되고 권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학기술에서 과학의 기초 연구가 중요하듯이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개별 인문학의 기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인문학에 대한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가 확대되어 전문 지식을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인문학이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학문적으로 규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인지 과학에 의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상위 목표과 하위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작자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¹⁾. 인간과 사회에 관한 다양한 학문은 문제 인식과 상위·하위 목표에 반드시 관여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규명하고 증명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문식성(literacy)의 차원에서도 이런 점은 해명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유 과정과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문식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사유 능력인 반성(reflection)과정은 언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적인 문식 능력이다. 단순히 조작과 기능을 습득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적인 문식성에 비해 비판적인 문식성은 기본적인 사유와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통찰, 비판적 사유를 제공한다. 투표지에 표기를 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과 누구에게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분명히 다르다³²⁾. 인문학은 이와

31) 존 R 헨더슨, 이영애 옮김,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대출판부, 2002, 244~245쪽.

32) Robert Calfee,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ology for Authentic Assessment

같은 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학술적으로 이런 점을 규명하고 사회와 대학에 이런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생산성 있는 기술도 인문학적 사유와 결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적 사유가 기술적 생산의 향상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산출하는지를 검증할 수만 있다면 인문학도 발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에 대한 퇴출 논의도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는 장기적으로 대학이 기업과 자본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할 것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추진되는 획일화, 균질화된 평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글로벌 경쟁 체제는 경쟁력의 지표 제공을 위해 평가 준거를 획일화하고 표준화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이념과 학문의 성격은 고려되지 않으며, 모든 학문은 평가 영역에서 유사한 평가 함수를 갖게 된다. 버넷은 자신의 책에서 현대 대학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념들을 가지는지, 얼마나 다양한 목표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인문학 대학도 있고, 과학 대학도 있으며, 기업적 대학, 관료적 대학도 있다³³⁾. 또 다양한 대학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과도 존재한다. 앞서 말한 대로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학문 체계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유사한 준거 항목에 따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도 맞지 않는다.

서보명은 대학이 참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유니벌시티(university)의 제도를 벗어나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³⁴⁾. 학문의 역할과 기능이 엄청

and Instruction, Technical Report No. 69, p.9.

33) Barnett R., 이지현 역, 『대학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학이당, 2011.

34) 서보명, 앞의 책, 62, 95쪽.

나게 달라진 현실에서 종합대학 제도는 모두를 하나의 논리(자본 논리) 속에 두어 경쟁의 체제 속으로 획일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하나의 종합대학(university) 아래 인문학과 경영학, 공학, 융·복합학이 같은 체제와 같은 경쟁 구도 속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이미 근대기에 칸트도 대학을 통제가 필요한 실용학문과 절대 자유가 필요한 비실용적 사색학문의 구분을 강하게 주장했다³⁵⁾. 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학문들도 기존의 학문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지금처럼 <투입과 산출>에 중점을 두는 획일적 평가 체계는 개별 대학과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종합대학을 학문 영역별로 분권화할 수 있다면 교육 과정과 평가 체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학문 단위별, 학습 기능별, 특성화별 평가 체제가 가능할 수가 있다. 대학을 서열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저널리즘 대학 평가의 분석한 논문을 보면 현재의 평가 방식은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타당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³⁶⁾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언론은 대학을 평가하여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서열식 평가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자문형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굳이 세계 대학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필요하다면 인문학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공, 경영계와 많은 부분 달라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미국은 대학 역사가 오래 되어, 작지만 개성 있는 대학들이 많다.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 전통을 유지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대학들이 있다. 국

35) 서보명, 앞의 책, 95쪽.

36) 이정미·최정윤, 대학의 질 개념에 근거한 주요국 언론기관 대학순위평가의 문제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권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319쪽.

내에 많이 알려진 세인트존스 대학은 오로지 4년 동안 100권의 고전만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좋은 학습 성과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과 학점이 없고 교수들은 직급이 없어 승진도 필요 없다. 그럼에도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이 이 대학의 수학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³⁷⁾. 뉴대학은 1년 내내 학생들은 개인 연구 프로젝트를 스스로 수행해야 하며, 졸업논문도 프로젝트로 제출해야 한다. 필수과목이 없으며 교수들은 학점 대신 심층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도와준다. 이 대학도 앞의 세인트존스 대학처럼 능력 있는 유명한 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³⁸⁾.

미국의 작은 대학들은 대체로 인문학적 교양을 중시하며 교양 교육에서도 성공적이다. 종합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교육보다 연구에 집중할 때 작은 대학들은 연구보다 교육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교양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는 스탠리 카츠 박사는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교양교육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츠 박사는 연구중심대학보다 오히려 작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³⁹⁾. 미국의 작은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하게 지키며 자유 교육의 전통을 잘 지키는 대학이 많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졸업자들이 아이비리그의 졸업생보다 더 성공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본과 기업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대학이 유니버시티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기의 대학 이념이 대학의 자율과 자유교육의 이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런 이념들이 자본의 침투로, 글로벌 경쟁의 소용돌이로 점차 위축되고 사라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금

37) 로렌 포프, 김현태 역,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한겨레출판, 438~453쪽.

38) 로렌 포프, 앞의 책, 242~247쪽.

39) 로렌 포프, 앞의 책, 13쪽.

대학의 몰락을 보면서 근대기와 같은 대학 이념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에 맞추어 최소한 그런 정신을 되살리는 과정은 필요하다. 자본의 힘이 대학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한다면 많은 학과는 문을 닫고, 대학은 장차 전문직업인의 양성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학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인문학의 회복이다. 인문학은 한편으로 전통적인 학문의 틀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계속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살아나면 자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세계 대학 평가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순위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순위의 경쟁을 통해 학술적인 발전과 미래 대학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순위 경쟁을 하지 않고 수학 능력을 키우고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 상황일 것이다. 학문의 참다운 목표는 노먼이나 버넷이 말했듯이 학문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로 인해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대학의 이념이 새삼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광웅 엮음,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생각의 나무, 2009.
- 공성진, 「지식 기반 사회와 대학 교육의 미래상」, 『대학교육』, 2001년 1·2월호, 대학교육협의회.
- 김정수 외,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황과 미래 전략』,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0권 3 호, 2010.
- 김철, 「대학의 이념과 21세기의 대학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권 1호, 한독교육학회, 2006.
- 김환석, 「과학과 인문학을 잇는 공학교육」, 『공학교육』 17권 2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0.
- 로펜 포프, 김현태 역,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한겨레출판.
- 박구용, 「대학의 이념과 교양교육의 미래」, 『범한철학』 67집, 범한철학회, 2012.
- 야스퍼스, 민준기역, 『대학의 이념』, 서문당, 1973.
- 유현숙 외,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R2011-3-17.
- 유재봉·정철민, 「초복잡성 사회의 대학 이념과 교육과정」, 『교육철학연구』 33권 1호, 한국교육철학학회.
- 이정미·최정윤, 「대학의 질 개념에 근거한 주요국 언론기관 대학순위평가의 문제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권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 이종수, 「한국 인문학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중앙행정논집』 16권 2호, 2002.
- 송유진,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교양교육의 혁신」, 『교육철학』 43집, 한국교육철학회, 2011.
- 서보명,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 정철민·유재봉, 「영국 대학의 개혁 동향 : 대학 이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 48집, 한국교육철학회, 2012.
- 존 R 핸더슨, 이영애 옮김,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대출판부, 2002.
- 최정윤 외,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14, 2011.
- 한승진, 「정보화 사회에 따른 대학교육의 개선에 관한 소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집.
- 헨리 뉴먼, 지방훈 역, 『대학이란 무엇인가』 김문당 출판사, 1985.
- Anderson, L.W.et al, 강현석 외 옮김,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 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아카데미프레스, 2005.
- Barnett R., 이지현 역, 『대학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학이당, 2011.
-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chapter 4.
- James Berlin, Rhetoric and Ideology in the Writing Class, *College English* Vol. 50, No.5, 1988.
- Robert Calfee,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ology for Authentic Assessment and Instruction, Technical Report No. 69.

The Changes of the Idea of University and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Chong, Hee-Mo (Yonsei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dea of college in information society and era of global competi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Idea of the university in the 19th century. It constitutes independence of the university and liberal education. University should pursue knowledge of human nature and the knowledge of exploration itself. But the idea of university undergoes chang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ogic of capitalism. Business and Engineering has become the center of the university and university has been dominated by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capital.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humanistic education naturally declined in the university.

A lot of papers proposed methods to overcome the crisis and environment. Popular methods among them regained the spirit of the idea of university and the humanities in college education. I think these suggestions have less realizability because university administrators will not accept them. But this paper suggests investiga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humanities i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Particularly, the humanities can be combined with other courses through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herefore doing research on humanities' roles in 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t has great value. In addition we must criticize the uniformity and the unitarity of university evaluation. These methods of the evaluation interrupt recovery

of the humanities in information society.

Key wards: information society, idea of the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the humanities, university evaluation

정희모 e-mail: jhm0108@yonsei.ac.kr

투 고 일	2013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13년 11월 01일
게재확정	2013년 11월 15일